

北韓經濟展望

(The Future of North Korean Economy)

安 喆 遠 *

要 約

北韓經濟는 計劃經濟가 갖는 基本的 諸難點을 바탕에 두고 이에 지나친 外資依存的發展, 自然自足重工業爲主의 發展이라는 成長戰略을 遂行해 왔다. 이러한 成長戰略의 矛盾의 露呈으로 北韓經濟는 앞으로 狀況의 急變이 없는 한 沈滯局面에 빠져들 것이다.

I. 序 論

展望이나 予測이란 科學的인 根柢를 요하며 때문에 많은 資料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資料가 미미한 北韓經濟의 앞날을 展望한다는 것은 北韓經濟에 대한 잘못된 評價가 誘發할 政策的誤謬를 생각할 때 큰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수수방관만 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므로 北韓發表資料의 對外宣傳的인 虛構性, 斷續性, 非一貫性, 絶對的・相對的量的 不足, 非親密性에도 不拘하고 많은 研究를 遂行한 國土統一院의 資料를 利用하여 北韓經濟의 未來를 짚어 보고자 한다.

本稿의 目的은 '80年代中半까지의 北韓經濟의 成長을 展望하여 보는 것인바, 그 論議의 順序는 먼저 II장에서 北韓經濟의 總體的規模의 成長過程을 GNP를 對象으로 살펴보고 趨勢의 觀點에서 그 展望을 알아 보고 III장에서는 그 成長過程을 投資財源의 調達 및 配分의 側面에서 보다 深層的으로 分析, 展望하여 봄으로써 II장의 趨勢展望을 補完할 것이며 끝으로 IV장에서는 北韓의 經濟가 韓國의 安保

와 關係되는 側面에서 綜合的으로 展望을 하여 보고자 한다.

II. 國民總生産 規模

1. 推 移

一國의 이제까지의 經濟的成果와 앞으로의 展望을 總體的觀點에서 把握해 보고서 할 때 資本主義經濟에서는 가장 一般的으로 國民總生産(Gross National Product : GNP) 概念을 使用한다.^{[1][6]} 그러나 社會主義經濟에서는 經濟力總體的 指標로 社會總生産(Gross Social Product : GST)이라는 概念을 널리 使用하고 있다.^{[11][12]}

北韓이 1950年代 以來로 中央集權의 計劃經濟體制下에서 本格的으로 行해온 經濟計劃의 成果는 과연 어땠하였는가 하는 包括的인 問題를 풀어 보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의 經濟總力을 우리에게 익숙한 GNP 概念으로 評價해 볼 必要가 있다. 閉鎖主義下의 北韓에 대하여 그 經濟力을 評價한다는 사실은 推測에 지나지 않을 우려도 있지만 國內外의 많은 機關에서 그러한 努力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評價를 整理해 보면 <表II-1>과 같다.

* 國防管理研究所

〈表Ⅱ-1〉北韓의 推定GNP⁹⁾

단위 : 100 万달려

추계주체 년도	中情 ¹⁾	통일원 ²⁾ 추계 I	통일원Ⅱ ³⁾	통일원Ⅲ ⁴⁾	최주환 ⁵⁾	ATLAS	I I S S ⁶⁾	ACDA ⁷⁾
1961			1,704					
1962			1,816 (6.6)					
1963			1,949 (7.2)					2,300
1964			2,051 (5.3)					2,500 (8.7)
1965	1,983(9.1)	1,810	2,245 (9.5)					2,500
1966	2,067(4.2)	1,920 (6.1)	2,451 (9.2)					2,900 (16.0)
1967	2,328(12.6)	2,110 (9.9)	2,564 (4.6)					3,000 (3.4)
1968	2,584(11.0)	2,570 (21.8)	2,692 (5.0)					3,500 (16.7)
1969	2,649(2.5)	2,720 (5.8)	2,952 (9.7)					4,000 (14.3)
1970	2,998(10.2)	3,190 (17.3)	3,190 (8.1)	3,190				4,500 (12.5)
1971	3,221(7.4)	3,460 (8.5)	3,460 (8.5)	3,460 (8.5)				4,900 (8.9)
1972	3,853(10.6)	3,750 (8.4)	3,750 (8.4)	3,750 (8.4)				5,300 (8.2)
1973	4,953(27.5)	4,208 (12.2)	4,450 (18.7)	4,450 (18.7)				
1974	5,459(10.3)	4,762 (13.2)	4,820 (8.3)	5,063 (13.8)	3,961	6,300		
1975	5,977(10.3)	5,382 (13.0)	5,380 (11.6)	5,656 (11.7)	4,425 (11.7)	7,100 (12.7)		
1976	6,594(10.3)			6,165 (9.0)	4,822 (9.0)	7,610 (7.2)	8,900	9,740 ⁸⁾

註 1) 李滿基 [9] , p . 45 . 適用換率 1970-71 : 1 \$ 當 2.75 , 1972 2.37 원 , 1973 이후 : 2.05 원

2) 上 同

3) 国土統一院 [12] , p . 378

4) 国土統一院 [13] , p . 21 適用換率 1972 까지 1 \$ 當 2.57 원 , 1973 이후 2.37 원

5) 崔周煥 [11] , 適用換率 1 \$ 當 3.03

6) I I S S , Military Balance , 1977 - 78 , 適用換率 1 \$ 當 2.05 원

7) 元殷常 [4] , p . 93

8) 朝鮮日報 1978 . 6 . 22 日字

9) () 內는 增加率

〈表Ⅱ-1〉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北韓의 GNP規模에 대한推計가推計主体에 따라 큰差異가 있으며 어느推計値가 가장 合當한水準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둘째,成長過程에 있어서도 큰相異를 보이고 있다. 卽, 한推計에서는成長率이 높아가고 있는데도 다른推計에서는 오히려成長率이低下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北韓經濟의 国内生産条件에 대한分析에 주로 의거하기 보다는 外部的量的資料 또

또는 判斷에 基礎를 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推計値들간의 差의 일부분은北韓원貨의 對美換率의 適用差異에서 야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點 때문에 論議를 쉽게 展開해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本稿에서는上記의 問題點을一部分 包含하고 있지만 여러가지北韓GNP推計方法中推計의 便宜性, 合理性面에서 認定되는支出所得接近方法¹¹⁾에 의거하여北韓의 60年代의 70年代의 GNP를推計하여 보았다.

推計結果는 比較의 目的보다는 北韓經濟의 成長過程評價에 目的이 있으므로 北韓元貨로 表示하였다. 그 結果는 <表II-2>와 같다.

<表II-2>에서 볼 때 60年代, 70年代의 北韓의 經濟成長過程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60年代前半('63~'66)

보다는 後半('67~'70)에 成長率이 더 높다. 둘째, 70年代初半('72~'76)에는 成長이 比較的 높게 持續되었다. 셋째, 70年代後半('75以後)에 들어 成長勢가 鈍化되고 있다.

<表II-2> 北韓의 GNP規模¹⁾

(단위: 100万 북한원: %)

年 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G N P	4,758	5,398	5,543	5,960	6,122	6,414
成 長 率	12.7	13.5	2.7	7.5	2.7	4.8
年 度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G N P	7,065	8,136	8,587	9,851	9,704	11,221
成 長 率	10.1	15.2	5.5	14.7	-1.5	15.6
年 度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G N P	12,231	13,089	15,104	16,847	17,447	
成 長 率	9.0	7.0	15.4	11.5	3.6	

資料: 최주환 [11] 에 의거하여 筆者 推計

註1) 對外去來에 對한 換率의 適用에서는 1971年까지는 1\$當 2.57 원, 1972년에는 2.36 원, 1973年以後는 2.15 원으로 하였다.

2. 展 望

앞에서 70年代初半에는 成長이 比較的 持續되었으나 後半에 접어 들면서 經濟成長이 鈍化되고 있다고 보았다.³⁾ 그러면 앞으로의 北韓의 經濟狀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이제까지의 經濟実績을 바탕으로 支出接近法에 의해 GNP規模를 推定해 보면 <表II-3>과 같다. 이에서 보면 北韓經濟는 80年

代 中半까지 5~6%대의 成長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過去의 趨勢에 의한 結果를 그대로 信賴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基礎로 하되 그 具體的 成長要因, 特히 最近의 成長變化要因을 살펴봄으로써만 그러한 成長의 可能性을 보다 깊이 分析해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그러한 要因을 投資財源의 調達과 配分面에서 살펴 본다.

<表II-3> 北韓GNP의 長期展望 (1978~1985)¹⁾²⁾

(단위: 100万 북한원: %)

年 度	1978	1979	1980	1981
G N P	19,193	20,348	21,562	23,027
成 長 率	10.0	6.0	6.0	6.8
年 度	1982	1983	1984	1985
G N P	24,402	25,753	27,120	28,509
成 長 率	6.0	5.5	5.3	5.1

資料: <表II-2>와 同一

註1) 輸出入資料는 김동규 [7] pp. 15-16 을 利用

2) 換率은 1\$當 2.15 원으로 함.

Ⅲ. 投資財源의 調達과 配分

經濟成長은 活潑한 投資活動과 이를 뒷받침할 円滑한 財源調達에 의하여 可能케 된다. II장에서 본 北韓의 經濟成長 過程은 投資率과 어떤 關係에 있는가를 우선 보자. 北韓의 投資率을 나타낸 것이 <表Ⅲ-1>이다. 이 表

에서 보면 60年代初半에 投資率이 14~5% 線을 유지하다가 60年代後半에 들어 20%를 넘어서서 23~4% 水準에 이르렀으며 70年代에 와서는 30% 水準까지 높아졌다.¹⁾ 이렇게 볼 때 北韓經濟의 成長은 일단 投資에 의해 크게 主導되었다고 볼 수 있다.

<表Ⅲ-1> 北韓의 投資率

단위: 100万 北韓원

年 度	投資支出 (A)	G N P (B)	投資率 (A/B) %
1960	585	4,220	13.9
1961	663	4,758	13.9
1962	822	5,398	15.0
1963	705	5,543	12.7
1964	796	5,960	13.4
1965	905	6,122	14.8
1966	960	6,414	15.0
1967	1,209	7,065	17.1
1968	1,731	8,136	21.3
1969	1,951	8,587	22.7
1970	2,379	9,851	24.2
1971	2,250	9,704	23.2
1972	2,746	11,221	24.5
1973	3,436	12,231	28.1
1974	3,976	13,089	30.4
1975	4,011	15,104	26.6
1976	4,858	16,847	28.8
1977	5,341	17,447	30.6

資料: 筆者 推計

1. 調 達

그러면 그러한 投資를 可能케한 調達源은 무엇인가? 調達源은 國民貯蓄과 海外貯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北韓의 財源調達은 海外에의 依存이 높다. 國民貯蓄은 國民總生産에서 民間消費를 控除한 것으로 擴大再生産을 위한 投資財源이므로 自力에 의한 經濟開發을 促進시키는데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다. 그리고 海外貯蓄은 國際收支上の 財貨와 用役의 輸出入差를 意味하는데 外資導入을 말

한다고 볼 수 있다.

外資는 經濟成長과 關聯하여 國內不足資源을 補填할 뿐아니라 技術을 隨伴하고 있으므로 設備投資擴大에 의한 經濟成長追求에 있어서는 必須的이다. 더구나 外資는 不足資源의 短期補填性, 投資의 集中性등의 性質을 갖기 때문에 短期間에 集中的인 投資를 하여 革新을 가져올 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다. 外資의 이러한 革新的成長誘因을 좇아 資本과 技術이 不足한 北韓도 外資에 크게 依存한 經濟

發展을 꾀하였다. 北韓의 投資額中에서 차지하는 外資의 比重을 보면 <表Ⅲ-2>와 같다. 이에서 보면 60年代에는 外資의 比重이 7% 水準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表Ⅲ-2> 投資支出에 대한 外資比重

단위: 100万 北韓원

年 度	投資支出 (A)	外資導入額 ¹⁾ (B)	B / A (%)	海外貯蓄率 ²⁾ (%)
1961~'70	12,121	865.3	7.1	1.3
1970	2,379	231.3	9.7	2.3
1971	2,250	686.2	30.5	7.1
1972	2,746	839.0	30.6	7.5
1973	3,436	1,040.6	30.3	8.5
1974	3,976	1,118.0	28.1	8.5
1975	4,011	-	-	-
1976	4,858	12.0	0.2	0.1

資料: 筆者推計

註 1) 国土統一院〔14〕p. 32에서 北韓원貨로 換算('71 이전 2.57원, 72. 2.36, 73 이후 2.15 원)

2) 投資率과 投資支出中 外資比重의 승으로 計算하였음.

것은 北韓의 中蘇關係의 密着程度에 따른 經濟協力の 不規則인 變化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外資導入이 많았던 60年代初와 末에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北韓이 中蘇와의 經濟協力の 限界性을 느끼고 그 対処方案으로 經濟建設에 所要되는 施設財導入先을 西歐先進諸國으로 本格的으로 轉換하기 시작한 1971년부터는 外資導入比重이 급격히 늘어나 1974年까지는 平均 30%에 가까운 水準으로 늘어났다.

國內投資率과 國民貯蓄率과의 罅을 나타내는 海外貯蓄率을 보더라도 60年代에 年平均 1.3이던 것이 1971年에서 1974年 사이에는 平均 7.9%로 投資財源調達의 自立度가 현저히 낮아졌다.⁵⁾

그러나 1975년부터는 다시 外資導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6년에 外資比重이 0.2%에 不過하였으며 그 以後도 비슷한 水準일 것으로 判斷된다. 그런데 이러한 事態는 需要面에서의 狀況變化에 기인하기 보다는 供給條件의 變化에 基因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外資가 必要하지 않지 때문에 그 比重이 低下된 것이 아니라 對外債務累積과 이에 따른 債務償還不能으로 國際信用이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北韓의 國民貯蓄도 民間消費를 크게 抑制함으로써 꽤 높은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海外貯蓄率과의 關係로 미루어 볼 때 國民貯蓄率이 60年代初에 13~4%이었으며 60年代後半에 20% 水準에 달하였다가 70年代初半에는 海外資本調達이 容易해 짐에 따라 17~8%에서 22~3% 사이에 維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5年以後로는 國民貯蓄率이 2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⁶⁾

그런데 1975年以後에도 民間消費抑制에 의한 國民貯蓄의 增大로 投資率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도 經濟成長이 鈍化되고 있다.

이것은 一面으로는 外資導入의 不能으로 앞에서 言及한 外資의 國內資源에 대한 補完的, 革新的機能이 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北韓의 이제까지의 成長過程은 投資

率 自体보다는 外資의 比重에 의해 說明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8]

그러면 北韓의 이러한 外資主導型成長은 어떠한 歷程을 거쳐왔나? 일반적으로 開發途上國의 경우 投資率이 20%를 넘어 같 程度로 外資導入을 하게 되면 外資導入 限界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2] 이러한 外資導入限界問題는 外資의 效率的 活用の 問題로 두 側面에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外資吸收能力의 問題로 이 能力은 建設産業分野의 技術水準, 建設資材의 供給事情, 電力·輸送能力같은 社會間接資本形成의 程度, 生産施設稼動을 위한 技術人力確保 등의 物理的要因들에 의해 決定된다. 이와 더불어 다른 하나인 外資償還能力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外資의 投資收益率이 적어도 外資利率보다 높아야 하고 또한 그 投資收益이 貯蓄化되어야 하는 등이 金融的要因의 充足을 말한다.

먼저 外資吸收能力을 볼 때 建築技術, 建材나 電力供給은 어느 程度의 水準은 갖추었다고 判斷되나 輸出能力은 크게 確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12] 技術面에서는 뒤에 다시 言及하겠지만 閉鎖性, 教育의 파행성 등으로 先進技術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外資償還能力에서 보면 外資가 거의 重工業에 投資된 것이고 重工業投資가 效率을 維持하려면 小規模經濟에서는 不可避하게 輸出이 必要한데 北韓의 輸出品이 대부분 一次商品이다.^[7] 따라서 導入된 施設이 效率的인 生産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17] 8)}

이렇게 볼 때 北韓은 外資吸收能力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더라도 償還能力이 더 問題視되는 것으로 보이며⁹⁾ 따라서 70年代初半에 經濟發展을 위해 지나치게 外資에 依存한 것으로 判斷되며 또 그것이 現實이어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은 1974年 중순계부터 對外債務支払不能事態에 빠졌으며 西方世界에서 그 信用을 喪失하였다.

2. 配 分

一國의 成長戰略은 投資財源의 配分 構造에서 쉽게 把握해 볼 수 있는데 北韓의 경우 GNP의 20~30% 가까운 額을 어떻게 配分하였는가 一次七個年計劃期間(1961~'70) 중에 總投資額의 57%를 工業部門에, 20%를 農業部門에 投資할 計劃이었으며, 新6個年計劃期間(1971~'76)에는 投資額의 49%를 工業部門에, 18%를 農業部門에 投資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머지 部門에 33%를 投資할 計劃이었다. 그리고 7個年計劃期間에는 工業投資額의 83%를 重工業部門에 割當할 計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重工業分野는 주로 軍需産業中心이며 外資는 거의 重工業部門에 投資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計劃資料 및 判斷을 根拠로 할 때 i) 農業投資가 상당히 높은 水準이며 ii) 工業에서는 重工業優先政策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iii) 輸出産業보다는 輸入代替的인 軍需産業中心의 投資配分이 이루어지고 있는 內向的成長戰略을 扞하고 있다고 判斷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投資政策의 成果가 과연 어떠한가부터 살펴보자. 農業部門과 工業部門의 成長実績을 보면 <表 III-3>과 같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i) 60年代 以前의 戰後復旧期에는 工業은 대단한 回復을 보였으나 60年代에는 工業成長의 부침이 심하였으며¹⁰⁾ 全般的으로 볼 때 工業成長이 不振하였으며 ii) 70年代에 와서는 比較的 높은 成長을 보이고 있으며 iii) 1975年의 高成長을 피크로 工業成長이 크게 鈍化되고 있다.¹¹⁾ iv) 農業部門에서는 60年代에 3~6%의 成長을 보이다가 70年代에 들어와서 1~2%의 低成長을 記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成果, 특히 工業部門의 成果는 앞에서 본 財源調達側面에서의 外資導入의 程度에 의해 크게 說明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投

〈表Ⅲ—3〉 북한의 工業 및 農業成長率

단위 : %

期 間	工業 成長 率		農 業 成 長 率	
	計 劃	実 績 ¹⁾	北韓 發表 值	評 価 值
1954 ~ 56	-	41.7		
1957 ~ 60	-	38.4		
1961 ~ 70	18	12.8		5.6% ³⁾ , 3%
1971	1971 ~ 76 年 年平均 14%	16		0.4
1972		16		1.5
1973		19	35.9	1.3
1974		17.2	31.1	2.0
1975		20	10.0	1.8
1976		9.8 ²⁾	3.9	1.9
1977			6.3	1.4
1978 ~ 80		12.1		

資料 : 国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7.
「北韓」78.3月号, p. 119에서 作成

- 註 1) 北韓發表值
- 2) CIA [17], p. 11
- 3) 国土統一院 [12], p. 142

資財源配分政策에는 調達側面의 成長效果를 相殺 내지는 弱화시키는 여러 問題點이 있다. 이들은 調達面과 서로 密接히 聯関되어 있다.

(1) 農業投資의 成長寄与限界(非人的 農業投資)

計數上으로 볼 때 北韓의 農業投資率은 높다.¹²⁾ 그럼에도不拘하고 農業成長이 低水準 내지 停滯狀態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一般的 見解로는 北韓은 農業의 化学化, 水利化, 그리고 機械化에는 相當한 投資를 하여 그 自体의 成果는 꽤 큰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나 北韓은 基本的으로 自然條件이 不利하며 耕地의 外延의 擴大가 限界에 달하였으며 특히 農村의 官僚化, 食糧備蓄을 위한 消費抑制로 農民의 增産意慾이 크게 減退되었다는 것이 農業停滯의 重要한 要因이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農業의 機械化, 水利化, 化学化에 큰 投資를 하였으나 經濟的誘因의 欠如라는 根本的인 体制的인 問題點, 그리고 最低生活의 保障이나 生活環境의 改善등 人間爲主의 投資가

없었기 때문에 農業投資는 生産性을 거의 向上시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農業의 停滯는 經濟成長에 隘路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¹³⁾

(3) 內向的 成長戰略

北韓의 經濟体制은 自給自足的閉鎖經濟体制이다. 이것은 必要한 物件을 自國內에서 모두 生産하여 使用하겠다는 것이며 外部世界와의 交易에 의한 分業, 專門化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開發途上國이 經濟發展을 遂行함에 있어서 重要한 選擇問題의 하나는 外向的 成長(Outward-looking growth) 이냐, 內向的 成長(Inward-looking growth) 이냐하는 문제이다. 어떠한 選擇을 하느냐하는 것은 그 나라의 經濟與件, 發展段階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現實的으로 이 選擇問題는 주어진 投資財源을 輸出産業에 우선 配分할 것인가, 아니면 輸入代替部門에 우선 配分할 것인가 하는 投資配分問題이다.

海外市場擴大를 통한 外向的成長은 比較優位産業에 대한 特化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確保에 힘입어 開發投資를 위한 輸入財源의 自力調達이라는 利點이 있으나 반면에 對外依存的 深化로 經濟構造上的 不安定의 問題가 있다.

한편 輸入代替를 통한 內向的成長은 國內市場擴大에 基盤을 두기 때문에 海外與件變化에 덜 민감하게 되고 長期的인 自給目標에 直接的인 接近策이라는 利點이 있지만 小規模經濟의 低開發國에서는 國內市場 협소, 技術미숙, 때문에 生産費가 높아져 높은 關稅障壁에 의한 國內産業의 保護가 없이는 困難한 資源배분상의 非效率이 따르며 또한 輸入財源의 調達問題를 円滑히 解決하지 못한다면 輸入代替가 比較的 쉽게 이루어지는 初期段階를 지나고 나면 經濟開發의 推進에 限界가 주어지게 된다.

一般的으로 內向的成長戰略을 扞한 나라는 國內市場이 크고 부존資源이 풍부한 國家들이었으며¹⁴⁾ 그 輸入代替過程을 보면 初期에는 國內生産이 比較的 용이한 輕工業제품분야에서 시작하여 重化學工業으로 進展하였다.

그리고 初期의 容易한 輸入代替段階에서는 成長이 比較的 높으나 高技術製品, 中間財, 資本財分野로 갈수록 技術不足 市場狹少로 輸入代替가 어렵게 되어 成長이 外向的接近國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다.¹⁵⁾ 그리고 양접근전략은 항상 상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기적, 보완적인 關係에 있는 것이 一般的인 過程이다.

閉鎖性이 강한 北韓經濟는 內向的成長을 指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國內市場이 협소하며 부존資源도 不足한 狀態에서, 또 資本과 技術이 적은 狀態에서 輕工業제품부터가 아니라 軍수사업 위주의 重工業제품부터의 輸入代替를 추구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전략은 명백히 배분적 效率을 해칠 뿐만 아니라 基本的인 투입輸入인 維持輸入을 위한 財源調達은 물론이고¹⁶⁾ 外資償還을 위한 財源調達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것이 앞에서 言及한 對

外債務償還不能을 초래케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같이 內向的成長戰略은 調達面에서의 成長鈍化要因의 뒷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國內市場擴大의 制限이라는 內在的條件 때문에 成長을 鈍化시키는 重要한 要因이 되었다.

(3) 重工業優先政策

北韓의 經濟構造는 自給自足的閉鎖體制이면서 重工業을 優先的으로 發展시키려는 體制이다. 重工業의 一般의 特徵으로는 그 設立에 大規模의 資本이 所要되며 經濟性 및 경쟁성을 担保하기 위해서는 大規模, 大量生産體制를 갖추어야 하며 資源多消費型産業이며 또한 技術集弱的 産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重工業이 成功되려면 內資動源 및 外資導入이 순조롭게 円滑한 市場担保와 資源의 安定的供給, 技術向上 및 技術人力 担保가 있어야 한다.

北韓은 資本, 資源, 技術이 不足한 小規模經濟이다. 그런데 資本의 不足은 效率的인 使用이 可能하다면 外資의 導入으로 매울 수 있다. 效率的 使用을 위해서는 그 條件인 市場과 技術 水準의 担保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重工業과 關聯하여 根本的으로 重要한 것은 經濟性的인 担保와 技術向上이다. 그런데 北韓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自給自足的 內向的成長戰略을 扞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性 競爭성을 担保할 大規模 大量生産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資本의 效率性을 担保하지 못하고 유지수입 및 償還을 위한 財源을 獲得하지 못하여 隘路에 處하게 되었다. 또한 技術面에서는 北韓은 閉鎖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先進의 技術變化에 기민하게 對處하지 못하고 있어 技術水準의 落后를 面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北韓의 教育制度가 工業化에 유용한 技能, 技術教育 보다는 金日成사상의 주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北韓의 技術 및 技能人力의 担保, 나아가서는 技術水準 向上에 큰 隘路가 되고 있다.¹⁷⁾ 또한 최종재산업인 軍수산업 중심의 資源配分은 中間財産業의 단절을 가져와 自生적 成長 基盤을 갖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볼 때 自給自足閉鎖體制을 指向하는 小規模의 北韓經濟에서 重工業中心의 成長戰略을 扞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持續的인 成長을 阻해하는 重要한 要因이 되고 모든 隘路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3. 展 望

北韓의 投資財源調達面에서 外資에 대한 依存度는 앞으로 낮은 水準에 머물 것이며 國民貯蓄率은 消費抑制의 強化로 어느정도까지 더 높아질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北韓의 經濟가 外資投資主導型成長을 하여 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앞으로 여건의 變化가 없는 한 外資導入의 隘路로 이제까지와 같은 外資에 의한 量에 의한 成長이 한계에 達할 것이다.

그리고 여건의 變化가 없는 한 이에 부가하여 投資財源配分政策上의 제 모순이 配分의 效率의 미발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狀況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것은 量에 의한 成長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配分政策上의 質的, 構造的 改善이 없는 한 配分政策上의 모순이 노정되어 調達面의 隘路에 결부되어 北韓經濟는 큰 난관에 處할 것이다.

IV. 綜合的 展開

이상에서 北韓의 經濟發展을 總體的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成長을 유래케 한 成長戰略을 投資財源의 調達과 配分이라는 면에서 檢討하여 보았다. 이에서 볼때 北韓經濟는 計劃經濟¹⁷⁾가 갖는 基本的 제한점^[10] 즉 價格機構의 개입없는 下向的, 命令的 計劃體制로 인한 資源配分의 非效率性, 특히 消費者 主權을 무시한 의도적인 軍수산업 위주의 資源配分, 産業間 需給不均衡에 따른 生産施設의 가동율저하현상, 그리고 경제적 유인의 결여로 인한 경제하려는 의지의 결핍과 이에따른 能率 및 生産性提高誘因의 결여, 관료주의의 고질화등 問題點을 바탕에 두고 이에 지나친 外資依存

的發展, 自給自足的 重工業 위주의 發展이라는 成長戰略을 遂行해 왔다. 外資導入에 힘입어 70年代初에는 量的成長을 이루었으나 經濟體質에 적합치 않은 成長政策, 社會間接資本의 不足, 技術的後進性등의 제모순과 특히 이로인해 70年代中半에 접어들면서 國際收支의 적자누적을 해결할 財源의 拓保不能으로 北韓經濟는 앞으로 침체국면에 빠져들것이라고 展望하였다.

II장에서 過去趨勢를 勘案할때 北韓經濟는 80年代中半까지 5~6%의 成長을 予想하였는데 III장에서 論議할 諸般狀況을 考慮할때 體制의 變化나 成長戰略의 變化가 없는 한 政體狀態에 빠질 것으로 展望된다.¹⁸⁾

北韓이 對外的으로 어떤 수치를 發表하고 計劃의 達成을 公표하는 根本的으로 北韓의 앞으로의 經濟發展에서 重要한 問題는 對外的으로는 對外債務의 해결이며 對內的으로는 成長戰略의 變化에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해결에 重點을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緊急히 要求되는 것은 장기저리차관과 시장의 拓保이다.^[5]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이 經濟協力の 方向을 社會主義諸國으로 다시 轉換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이에는 限界가 있으며¹⁹⁾ 서구 특히 美日과의 關係改善 및 強化에 더 積極的으로 나설 展望도 있다. 그리고 製品市場의 拓保를 위해 第3世界를 中心으로 한 開發途上國과의 外交強化에 積極나설 것으로 判斷된다.²⁰⁾

한편, 對內的 成長戰略의 變化를 위해서는 民生위주로의 投資政策目標의 수정문화개방등의 선행조건이 必要하게 되는데 이러한 變化는 短期的으로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北韓의 體制, 政策, 基本路線을 變化시킬 가장 큰 要因들을 經濟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10]

參 考 文 獻

1. 圖 書

- (1) C. Hitch and Mckean, R., The Economics of Defense in the Nuclear Age, 國防大學院安保問題研究所訳書 Chap. 3.
- (2) 安承詒, 國際經濟의 理論과 政策, 法文社, 3, 12, 13障, 1977.

II. 定期刊行物

- (3) 小川和男, “苦境に あえぐ 東歐經濟”, 世界週報, 1978. 5. 30. pp. 44 - 55.
- (4) 元殷常, “國防費의 OR的 分析”, 韓國軍事運營分析研究會誌, Vol. 3 No. 2, 1977, p. 93.
- (5) 李庭植, “80年代의 北韓과 北韓의 對外政策”, 新東亞, 1978. 10月 pp. 183 - 186
- (6) 鄭基俊, “GNP 論難”, 政經研究, 1979. 2月 pp. 200 - 207.

III. 報告書 其他

- (7) 金東奎, 對外貿易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国土統一院, 國통조 77-12-1351.
- (8) 朴春三, 對外經濟協力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国土統一院, 國통조 77-12-1352.
- (9) 李滿基, 南北韓國民所得水準과 消費生活比較, 国土統一院, 國통조 77-1-1105
- (10) 趙淳, 北韓社會의 長期展望, 国土統一院, 第四次統一問題國際學術會議發表論文, 1978. 11. 3.
- (11) 崔周煥, 北韓의 國民總生產推計方法導出과 南北韓經濟成長推移比較, 国土統一院.
- (12) 国土統一院, 南北韓經濟力量比較, 國통조 78-2-1388.
- (13) , 南北韓經濟力量 및 成長潛在力比較, 國통조 77-12-1356.
- (14) , 北韓對外經濟協力關係研究, 國통조 77-12-1355.

- (15)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5.
- (16) 政府, 第四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1977-1981), 1976.
- (17) CIA, Korea: The Economic Ra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Jan. 1978.

註 1) 美國務省의 報告書에 따르면 (조선일보 1978. 6. 22日字) 1976年의 北韓의 成長率은 3%였다. 美國務省은 北韓經濟에 대해 가장 保守的인 評價를 하고 있는 機關임을 考慮할 때 (〈表 II-1〉參照) 北韓經濟가 70年代 中半에 와서 成長의 鈍化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2) 北韓의 發表에 의하면 1961~70年의 計劃成長率은 10.4%, 1971~'76年에는 10.3%였으며 第2次 7個年計劃期間(1978~'84)에는 國民所得의 成長目標을 年 9.6%로 세우고 있다.

3) 北韓의 經濟成長計劃目標은 계속 下向調整되고 있다. (註 2參照) 目標成長率의 達成与否는 차지하고 目標成長率을 下向調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計劃執行過程에서 高度成長의 限界를 認識하였기 때문이겠지만 특히 70年代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成長率의 下向調整을 불가피하게 하는 諸要因이 具體的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의해 現實的인 成長鈍化가 뒤따랐으며 그 論議가 III장에서 展開된다. 이러한 成長率鈍化現象은 北韓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大同小異한 理由들로 東歐諸國에서도 一般的인 狀況이다. 東歐諸國은 70年代의 이러한 狀況에 直面하여 過大策定된 目標達成爲主의 量的成長보다는 質的으로 效率的인 生産을 重視하는 經濟發展路線을 서서히 採択하고 있다.^[3]

4) 韓國의 三次五個年計劃期間('71~'76)

- 중의 平均投資率이 26.9%였으며 四次 計劃期間('77~'80)에는 26.2%로 計劃되어 있다.^[16]
- 5) 韓國의 '72~'74 年의 平均海外貯蓄率이 7.7%였음과 比較할 때 70年代初의 北韓의 資本調達의 海外依存이 높다는 것을 一見 認知할 수 있다.^[15]
 - 6) 美 CIA는 北韓의 國民貯蓄率을 GNP의 25~35%로 보고 있다.^[17]
 - 7) 이것은 外資에 의한 投資가 모두 設備投資로 된 反面, 北韓의 國內資源에 의한 投資의 相當部分이 生産性向上에 直接 影響을 주는 設備投資보다는 建設投資爲主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判斷된다.
 - 8) 이에 대한 상세한 論議는 다음 節에서 展開된다.
 - 9) 外資元利金償還의 短期的負擔度를 測定하는 尺度로 「元利金 償還比率(debt-service ratio)」을 使用하는 수가 있다. 이는 輸出額에 대한 元利金償還額의 比率인데 너무 機械的, 部分的이라하여 잘 쓰이지 않고 있는데 北韓의 경우 100%水準으로 지나치게 높다.^[17]
 - 10) <表Ⅲ-3>에는 年度別成長率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年度別 資料를 보면 기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 11) 70年代初半에 工業이 比較的 높은 成長을 보여 왔지만 1974年부터 야기된 對外債務不能問題로 1976年부터는 10%以下로 工業成長率이 떨어졌다.^[17]
 - 12) 韓國의 3次5個年計劃期間('71~'76)에 總投資額에 대한 農業部門投資의 比重이 9.3%였으며 4次計劃期間('77-'81)에는 그보다 낮은 8.6%를 計劃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16]
 - 13) 北韓의 農業은 農業의 諸機能中 가장 重要한 食糧供給機能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고 있으며 1973, 1974年에는 大量의 食糧을 輸入하는 등 農業의 外換供給에 逆機能을 遂行하였다.
 - 14) 그러한 代表的인 國家로 브라질을 들 수 있으며 資源이 풍부한 國家의 예로는 필리핀을 들 수 있다.
 - 15) 重工業優先의 工業化에 대해서는 다음 뜻에서 論한다.
 - 16) 美 CIA는 第二次七個年計劃期間('78~'84)에 輸入隘路때문에 北韓의 工業生産은 計劃成長率인 12%의 半以下, 즉 6%以下로 成長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17]
 - 17) 北韓의 計劃經濟體制는 社會主義計劃經濟의 中夫集權의 行政管理體制, 計量計劃型管理體制, 制限的中央集權型, 市場補完型的 四類型中 가장 硬直的인 中央集權的 行政管理體制이다.^[12]
 - 18) 美 CIA는 80年代初까지의 北韓의 GNP 成長率의 最大值가 6% 程度일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17]
 - 19) 北韓의 東歐諸國에 대한 總債務額이 10億달러 以上이 될 뿐만아니라, 蘇聯을 위시한 東歐諸國의 對西歐債務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 20) 製品市場의 確保라고 하여 外向的 成長戰略으로 變化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國際分業의 利益을 考慮한 輸出이 아니고 外換收入을 위해 販賣可能한 製品을 販賣하는 것이며 製品이 國際競争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販賣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製品으로서로는 쌀 등의 農産物, 武器類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최근 北韓은 印尼等地에 國內의 食糧難에도 不拘하고 쌀輸出을 計劃하고 있었다.